

# “4대강 조사 MB 아닌 새정부서 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범국민적 신뢰기구 촉구  
“사업추진에 동참한 지역 정치인들도 책임져야”

감사원의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히 현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조사에 대해 불신을 갖고 4대 강 사업 전반과 피해 내용을 조사·평가 수행할 수 있는 범국민적 신뢰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진상규명을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사회, 종교·학계 등은

23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향후 대책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하천 수위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침수 피해와 영향 범위가 강 밖으로까지 확대되고 비정상적 침식 등으로 하천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보의 안전과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평가와 검증에는 부족함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문제와 녹조현상 및 물고기 폐죽음, 습지훼손 등 생태계 파괴문제, 홍수조절지 조성의 적정성 문제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영산강 본류 사업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지천 상류 독농이기 사업 등 4대강 사업과 연계된 모든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와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정부·학계·시민사회·지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전반과 피해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일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와 4대강 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임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준영 전남지사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동참했다”며 “이들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대강사업 진상 규명을 바라는 광주 전남 시민사회·학계·종교단체가 23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동흡 낙마할 듯

새누리당 내부서도 부적격론·자진사퇴론 ... 지도부 최종 결론 유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부적격론’은 물론 ‘자진사퇴론’까지 거론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법조 출신 재선의원인 박민식 의원, 조선인 김태흠 의원 등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특위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김태흠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도록 하든가 심사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 “공나물 사는데 쓰면 안 되지”라고 비판,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비토론’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같이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원내 지도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지명된 ‘박근혜 정부 첫 인사’라는 점에서 낙마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즉각적 수순 밟기에 보다는 여야 협상을 병행하며 여론의 흐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4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시 일부만 반대표를 던져도 이 후보자는 국회 본문을 통과할 수 없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철회 등을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로 국민에게서 자격 미달, 부적격자로 판명받았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임명철회를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김동철 “호남고속철 재검토” 지적 ... 인수위선 강력 부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인수위에서 호남고속철 사업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호남고속철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호남고속철 사업은 국토의 대동맥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 조기완공을 공약했던 사업이다”며 “현재 계획대로 2014년 완공된다 해도 경부선 고속철도 1단계 사업에 비해 10년이나 늦게 완공되는 셈인데 호남선을 또 다시 수십 년 늦추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내년이 완공인데 이미 한 시설을 다 뜯어내려 소리냐”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몇 년째 몇 조가 들어간 사업을 어떻게 다시 검토하느냐”며 “호남고속철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가 지금까지 (지역)사업 결정을 한 적이 있느냐”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발언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난주 언론에 보도된 ‘북지재원 때문에 지역 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화폭에 담은 혁명과 연대의 서사



⑮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열풍이다. 영화 개봉 한달 만에 전국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하더니 원작 소설, OST앨범도 인기다. 열광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살아갈수록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들을 극적이고도 예술적인 완성도로 표현된 것이 요즈음 우리를 마음에 파고들어서인 것 같다.

영화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1830~1832년의 프랑스 시민 혁명이 시대적 배경이다. 바로 그 곳, 1830년 7월 혁명의 한복판에 있었던 외젠 들라크르와(1798~1863)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다. 프랑스 국민군에 입대했지만 불기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던 들라크르와는 대신 화면에 소총을 잡고 실크햇을 쓴 남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등장시킨다. 권총을 들고 환



들라크르와 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희의 합성을 지르는 어린 소년은 영화 속 부랑아였던 소년 가부로 슈인 듯 하다.

파리를 뒤덮은 포화의 연기 사이로 보이는 시민군들은 삼색기를 손에 들고 전진하는 ‘자유의 여신’ 뒤를 따른다. 이 여신은 작품 속 이미지로만 머물지 않고 ‘혁명 정신’과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성상인 ‘마리안느’가 된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조각전을 개최해 어머니이자 누이, 여신의 이미지로서 마리안느의 모습을 탄생시키는데 이어 현대에 와서는 10년마다 마리안느를 대표하는 여성을 선발한다. 역대 마리안

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 브리짓 바르도, 미레이 마타유, 카트린 드뇌브, 레티시아 카스타를 거쳐 현재는 소피 마르소로 치환되며 ‘혁명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다.

시간의 비평을 견뎌낸 명화들은 이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선다. 2013년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화 ‘레 미제라블’이 일어설 용기를 주었듯이 들라크르와가 화폭에 창조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도 혁명과 연대의 새로운 서사를 그려보게 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GOLDEN  
GRAND  
SLAM

세계 최고 항공사 상을 휩쓴  
하늘 위의 월드스타

2009~2011년 <올해의 항공사> 수상으로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아시아나항공이  
2012년에도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010 SKYTRAX

2009 ATW

2011 Global Traveler

올해의 항공사  
5관왕

2012 Premier Traveler

2012 Business Traveler

2012년 Business Traveler 공신 수상 명칭은  
Best Overall Airline in the World입니다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